

# 청소년들의 열정, 공부 스트레스 훌훌 털고 빛고를 달궜다



고등부 최강자는? 3대 3 길거리 농구 고등부 결승에서 만난 'BTK'팀과 'SSGE'팀이 볼을 다투고 있다.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제4회 청소년 축제'가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공연 부문 18개 팀, 영상 20개팀, 길거리 농구 25개팀 등 모두 63개팀 3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광주·전남 청소년들은 이날 잠시나마 학업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금남로를 달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화보로 담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언니들의 댄스 동일전자정보고 댄스 동아리 '베아트리스'가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동생들의 댄스 상일중 '뷰티' 멤버들은 걸 그룹 음악에 맞춰 신나는 댄스를 선보였다.



열정의 사자춤

중국 전통음악과 힙합에 맞춰 멋진 사자춤을 선보인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사자춤 동아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광주동부경찰은 청소년 축제에 참가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산울림' 대상 수상 완성도 높은 '호남 우도굿' 가락을 선보인 문성고 풍물패 '산울림'은 이날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호남대 응원단 호남대 응원단 'DRP'는 힘이 넘치는 안무로 청소년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